

홍미진진 공주

2026.10.

Vol. 379



제268회 임시회 개최

공주시의회(의장 이범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 8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 ▲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 9월 3일부터 8일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9월 9일 제2차 본회의 ▲ 9월 1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그간 공주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추진 위원회’를 출범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범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시 최대 현안인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문제와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26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안내

일시 : 9. 28.(월)~10. 27.(화) / 30일간

장소 : 본회의장 및 상임위, 특위 회의실

방청안내 : 041-840-8015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2027년 출자·출연안 심의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의

· 2026년 시정에 대한 질문

· 2026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의 등

국립공주대학교 -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활동 전개

공주시의회는 전방위적인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반대 활동을 펼쳤다.

공주시의회는 8월 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통합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과 관련 현안 및 우려사항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한편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설명회 현장에도 참석하여 피켓시위를 벌이고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등 통합 반대에 대한 지역여론을 전달하는데 힘을 보탰다.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양 대학의 통합은 공주시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중대한 위협 요소”라며, “공주시에 불리한 대학 통합이 추진되는 한,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들의 뜻에 따라 강력한 통합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결의안 채택(8. 31.)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과
통합 관련 현안 논의(8. 31.)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신청서 제출 대학
구성원 설명회 참석(9. 3.)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관련
시민설명회 참석(9. 8.)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추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9. 9.)

의원 5분 발언

**방문을 넘어 정책으로,
공주시 인구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권경운 의원
라 선거구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최근 집행부는 우리시가 월평균 생활인구 70만 명을 기록하며 충청남도 1위, 전국 3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주시 '정주민구'는 지난 10년간 하락 중이다.

2023년 기준, 사망자 수는 1,271명으로 출생아 327명의 약 4배이며, 2026년 8월 기준 우리시의 고령인구 비율은 34%를 넘었다. 출생·사망 격차로 인한 자연감소 폭은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주민구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한다.

첫째, 인구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책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실효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유입 대상을 겨냥한 획기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가구별 특성을 분석한 후, 공주시만의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공주대와 충남대 통합에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내 기업과 연계한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대학 통합은 필연적으로 청년 유출을 초래하는 만큼 공주시는 이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변화된 인구 구조에 대응하여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1,793억원 추경,
'일단 확보하고 보자'식
예산 편성은
끝내야 합니다**



구본길 의원
가 선거구
(유구읍,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179,300,000,000원".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이다. 이 돈은 시민의 삶에 닿을 준비를 마쳤는가. 이 질문에 비추어 보면 세 가지 사실이 확연히 보인다.

첫째, 준비 없는 편성이다. 사전 절차 미이행, 집행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시설비만 818억원.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112일이다. 112일 안에 818억원을 집행할 수 있을까.

둘째, 집행이 멈춘 사업을 증액한 사례이다. 3년 넘게 집행이 저조한 9개 대표 사업 중 2개 사업을 오히려 증액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선별했는지 자료 어디에도 밝히지 않았다.

셋째, 예산에 비해 집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이다. 작년 집행잔액은 338억원이고 반환하는

국·도비는 103억원에 이른다. 예산만 확보하고 집행은 뒷전인 구조적 병리이다.

사업 마무리 후에도 유지 관리비는 해마다 세금으로 총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전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구체적 계획이 없는 예산은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 계약과 착공, 준공 예정일을 명시해야 한다. 둘째, 제출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산출 근거, 집행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셋째, 공모 사업은 타당성, 사후 운영비까지 냉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의회 역시 심사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추경 집행 실태를 다음 달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결산 심사에서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청정 유구의 미래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불허 촉구



이지은 의원
비례대표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페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터전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삼면이 산인 유구읍 분지 특성 상, 유해가스는 마을에 갇힐 우려가 크다.

해당 사업은 시장의 불허가 재량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단호한 결단이야말로 위험 시설로부터 주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

첫째, 입지 적합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부지가 입지 제한 규정에 어긋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둘째, 법원 역시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주민 간 분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오염시설의 총량적·누적적 영향까지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셋째, 이 사태 재발을 막을 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하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이격 거리 기준이 있음에도 이번 사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규정의 사각지대와 느슨한 집행을 되짚어 봐야 한다.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한다. ‘주변 경관 훼손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사업의 부적합성을 단호하게 판단해야 한다.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안전이다. 유구읍 녹천리 열분해 공장 신청 건에 대한 엄정한 재검토와 불허가 처분을 간곡히 촉구한다.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 명탄서원 세상 나들이 전시회 개최

유교아카데미 서예 작품 40여점 전시

공주시의회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민예술공간에서 “명탄서원 세상 나들이”를 주제로 서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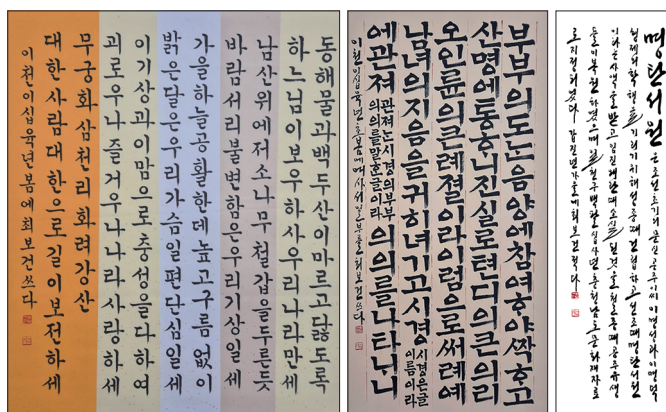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명탄서원에서 운영하는 토요일문학강좌를 통해 실력을 갈고닦은 수강생들의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 기간 동안 시민들은 수강생들이 정성 들여 완성한 서예 작품들을 감상하며, 인문학적 성취를 공유하고 미적 감성을 나누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탄서원 이운일 원장은 “명탄서원의 작품을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에 전시해오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와 서예의 매력을 많이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시의회 시민예술공간은 지난 2019년부터 의회 청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되어 왔으며, 매달 새로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의회와 시민’이 예술을 통해 소통하는 문화 명소로 정착했다. 그동안 현대미술, 천연염색,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가 이어지며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주시의회는 “시민예술공간은 시민들의 예술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며, “고풍스럽게 펼쳐진 서예의 멋을 통해 일상에서의 심표를 그려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명탄서원 유교아카데미 서예 작품